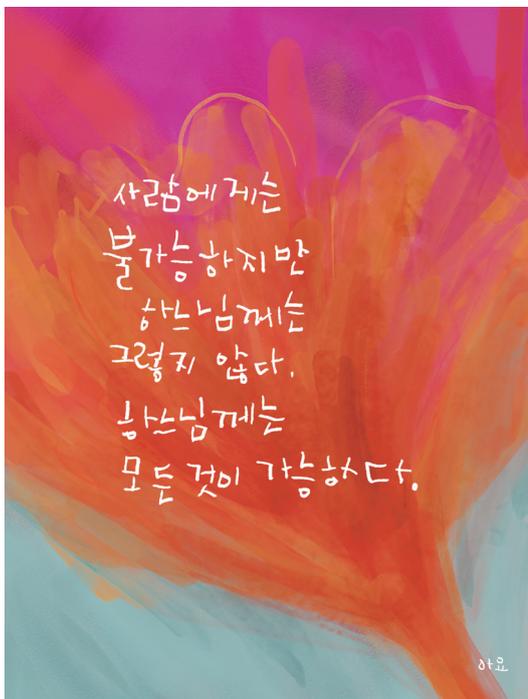


칭찬주보



말씀그림 | 김 아녜스 요안나

입당송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1독서 지혜 7,7-11

화답송 시편 90(89),12-13,14-15,16-17(◎ 14 참조)

-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헛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히브 4,12-13

복음환호송 마태 5,3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르 10,17-30<또는 10,17-27>

영성체송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응답하라 가톨릭교리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에 기반하여
묵주기도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 묵주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 ❓ 묵주기도는 복음 전체의 요약이자 구원적인 강생에 집중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인가요?

“소중함을 채워가는 시간”



이원근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제 55사단 봉화성당

충성! 청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68년부터 군인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기 위한 ‘군인 주일’을 제정했으며, 오늘로서 5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지키는 송고한 부름에 응답한 군인들을 향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오늘도 군종교구의 주교님과 103명의 군종 사제들은 기쁘게 청년 사목의 요람인 군대에서 사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징병제를 도입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군 복음화는 매우 중요한 청년 사목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통계 수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0년 전인 2012년 20~24세 청년 영세자는 전 교구를 합해 30,000여 명, 그중 군종교구에서 세례를 받은 이들은 무려 27,000여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를 크게 받은 2022년 군종교구에서의 세례자 수는 1,7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군종교구의 선교활동도 조금씩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후방 외진 곳에서 고요하고 외로운 밤을 보내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군종 사제들이 성당에서 병사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대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는 4,300여 명의 군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군인들은 주일에 간식을 받기 위해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각자 맡은 소명에 따라 주어진 임무에 책임을 다하며 참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세상은 이를 위해 경쟁하며, 경주마처럼 치열하게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경주마는 눈 옆을 가리개로 가린 채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유혹과 역경이 다가와도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쟁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늘 자기 자신보다 앞선 사람이 눈에 띄게 되고, 그들과의 비교 속에서 열등감은 커져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남의 재산과 재능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그게 본인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는 혹독한 조련으로 다른 말들에 비해 빠른 경주마를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막 20대로 접어든 청년들이 잠시나마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군대는 경쟁 속에 지친 청년들이 그것에서 잠시 벗어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소중한 것을 채워 나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머문 자리

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사랑이 언제나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상옥 토마스 / 신사동 성당]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느낀 순간을 사진과 글에 담아 보내주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서울대학교 청소년국 청년부' 친구 추가 후 전송



세상 이야기를 가톨릭 청년답게 나누보는 담소 공간

즐거로운 청년 생활 season2



티메프 쓰나미... e커머스 줄줄이 폐업



즐거로운 청년생활 시즌2

9시간



사진 출처: 뉴스원, 매일신문, 한경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지연하면서 판매자들과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누적되어 여러 방면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이는 티메프(티몬+위메프)에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적자 문제와 모회사 큐텐의 나스닥 상장만을 생각한 부실 경영 등 여러 복합한 요인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통해 피해 보상을 해결하려고 있지만, 국민의 피담인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있더라고. 너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해?

#티메프 #플랫폼사업 #e커머스 #줄도산 #서울대교구 #청년주보

160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스텔라

티메프에 입점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체를 생각하며, 먼저 정부에서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도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좋은 대처라고 생각되네.

6시간 좋아요 답글 달기

6



제노비오

글쎄.. 나는 반대야. 무모한 기업 인수와 사업 확장에 대해서 철저한 정부에 감독이 선행됐어야지 급한 불 끄듯이 세금으로 해결 하는게 맞을까?

5시간 좋아요 답글 달기



미카엘

어쨌건 이번 사건은 e-커머스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확실해. 특히 판매자들에게 정산되는 금액을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일들이 근본적 문제였던 거 같아.

4시간 좋아요 답글 달기

4



세라피나

다른 여러 플랫폼도 최근 폐업하고 줄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던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겠어.

3시간 좋아요 답글 달기

10



댓글을 입력하세요...



즐거로운 청년 생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고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존엄하고 지성 있는 인간들이 모여서 경제적 이익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인간도 그저 하나의 숫자로만 취급받아 이윤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가톨릭 사회교리는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사목헌장」 63항)이라고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니 경제도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바라시고 우리도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응답하라 가톨릭 교리



Madonna de rosario, Lorenzo lotto, 1539

Q. 묵주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초기교회의 신자들은 기도 대신 장미꽃다발을 바치기도 했고, 장미관을 쓰고 순교한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두며 꽃송이마다 기도를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15세기 말경 환희, 고통, 영광의 15단 묵주기도가 자리잡으며, 교황 비오 5세께서 1569년에 오늘날과 같은 묵주기도를 표준화하셨습니다. 이후 2002년 10월 요한바오로 2세께서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추가하시며 현재의 묵주기도가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온전히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78항 / 가톨릭 신문 제 2367호 4면

Q. 묵주기도는 복음 전체의 요약이자 구원적인 강생에 집중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인가요?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일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 가지씩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는 '환희의 신비', 복음 선포를 묵상하는 '빛의 신비',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통의 신비', 그리고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을 묵상하는 '영광의 신비'를 바치며, 복음 메시지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총괄적으로 느끼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971항 / 마리아 공경(Marialis Cultus) 46항



성 도미니크에게 묵주를 주는 마리아, Peter Paul Rubens, 1630

ICPE 몸신학 피정(시그널 심화)

대상 가톨릭 신자 젊은이 청장년

일시 11/22 저녁 ~ 11/24

장소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

문의·신청 010-5646-6594 (ICPE 카톡 플친 채팅)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부서원 모집

내용 주님의 도구로서 청년부와 함께할 부서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 밴드 유빌라떼, 주보편집부, 홍보부, 번역부

지원 문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02-762-5071~2